

肅宗 時의 2차에 걸친 사회와 사림 세력의 대립적인 조광조가 사회에 의해 거세되는 등의 좌절을 겪게 되자, 세 왕조의 제도개혁과 관련하여 ‘治人’에 초점을 맞추어 수용되었던 性理學은 도덕적 완성을 목표로 하는 ‘修己’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立教・明倫・敬身을 內容으로 한, 修身 교과서인 朱子의 《小學》이 사림에 의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한편으로는 性理學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近思錄》, 《朱子實記》, 혹은 《朱子大全》 등과 같은 朱子 관계 서적 간행이 증가되었고 《家禮義節》과 같은 예절에 관한 서적 및 《天運紹通》과 같은 우주론에 관한 서적 등이 간행되었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상기 목록표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中宗 38년(1543년) 경상도 豐基郡守이던 周世鵬에 의해 처음 세워진 서원이 明宗時에는 각 도에 세워져 17개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性理學의 발전을 자극하여 급기야는 李滉, 趙植과 같은 명망있는 大學者가 나오므로 해서 性理學의 발전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鄉約이 만들어져 시행되었는데, 이 鄉約은 서원과 더불어 鄉村에서 사림들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sup>6)</sup> 明宗 20년(1565년)에 간행된 《朱子增損 呂氏鄉約》이라는 책은 이 시기의 鄉約의 전과 발전에 그대로 자못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明宗時에는 性理學의 융성과 더불어 많은 儒家經典과 朱子, 二程 등 宋儒의 저술이 상당수 출판되었으리라 짐작되는데 실제로 현존하는 시목을 보면 그러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새로운 활자의 鑄造 없이 前代의 활자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의 典籍 印出 상황 중 前代에 비해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兵家書의 印出이 다른 시기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종류도 《吳子》와 《孫子》 등이 3종이나 되며, 《孫子》는 전에 비해 양도 많았졌고, 그것이 木板과 乙亥字版 및 己卯字版 등 3가지 版式으로 印刷되었다는 점이 그것을 말해 준다. 이 시기에는 儒家와 兵家書 외에도 《南華真經》이라는 이름으로 道家書 《莊子》가 印出되기도 하였다.

宣祖時代에는 그의 재위 기간이 길었던 만큼 典籍의 印出量 또한 매우 많아졌다. 宣祖 6년 癸酉年(1573년)에는 世宗 16년에 鑄造한 甲寅字를 再鑄造한 癸酉字가 나왔는데, 壬亂 직전인 宣祖 24년까지 이용되어 오다가 임진란 때 다른 활자들과 함께 거의 없어졌으나 임란 후 宣祖 39년까지는 일부분이 잔류되어 《書傳大全》, 《春秋經傳集解》, 《小學集說》, 《論語諺解》, 《小學諺解》 등의 印書에 쓰였다. 宣祖 13년 庚辰年(1580년)에는 甲寅字의 再鑄, 乙亥字의 再鑄, 혹은 그에 가까운 活字體,<sup>7)</sup> 혹은 韓石峯體로 字本으로 하여 만든 것<sup>8)</sup>이라는 등의 異說이 분분한 庚辰字가 鑄造되어 《小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 《中庸諺解》, 《大學諺解》 등을 印出해 내었다. 또한 宣祖 22년 己丑年(1589년) 한석봉의 字體를 가

6) 李基白, 《韓國史新論》(서울: 一潮閣, 1980), pp. 247-248.

7) 金斗鍾, 前掲書, pp. 196-197.

8)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pp. 220-221.

지고 孝經大義字를 만들어 同年《孝經大義》와 《孝經諺解》 등을 찍었는데, 현재는 《孝經大義》와 《佛說阿彌陀經》만이 전해진다.<sup>9)</sup>

상기 목록표에 의하면 宣祖代에도 儒家經典의 간행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儒家經典 중에서는 《朱子大全》, 《朱子語類》 등 朱子 관련 서적이 가장 많았고, 《禮記》와 《儀禮》 등의 三禮書 및 《大學》, 《中庸》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 시기에는 明宗代처럼 兵家書도 많이 印出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孫子》와 《吳子》는 거의 없고 《尉繚子》, 《六韜》 등이 새로 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宣祖代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활자가 만들어졌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訓練都監字이다. 訓練都監이란 임진란이 일어나던 이듬 해인 宣祖 28년(1595년)에 사병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활자에 관한 임무를 맡은 것은 校書館이건만 전란으로 인해 그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또한 병영으로서도 養兵의 경비를 얻기 위하여 訓練都監이 가진 물자와 인력을 이용하여 투쟁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宣祖 33년(1600년)부터 印書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바, 이 印書에 사용된 활자를 총칭하여 訓練都監字라고 한다. 그리니 전란으로 인하여 물자의 결핍현상을 보인 때였으므로 수십만 자에 달하는 급속활자는 鑄造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기존의 활자에 부족한 활자를 木活字를 섞어 印書하다가 후에 訓練都監의 나무활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字體에 따라 蜀體字體(혹은 甲寅字體訓) 鍊都監字, 安平大君字體(혹은 庚午字體) 訓練都監字, 姜希顔體(혹은 乙亥字) 體訓練都監字, 甲辰字體 訓練都監字 등 크게 4종류로 나누어 진다.<sup>10)</sup>

그런데, 이 訓練都監字에 의한 典籍으로 宣祖代의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 光海君과 仁祖代의 것이 주로 보인다. 그중 光海君 7년(1615년) 《四傳春秋大全》, 光海君 2년(1610년)의 《詩傳大全》, 《書傳大全》과 同 3년(1611년)의 《大學諺解》, 同 4년(1612년)의 《小學諸家集》, 同 5년(1613년)의 《詩經諺解》, 《孝經諺解》 등은 安平大君字體에 의한 것이다. 그밖에도 눈길을 끄는 책으로 《周易參同契》와 《春秋胡氏傳》이, 그리고 兵家書로서 《諸葛孔明心書》가 印出된 사실이다. 光海君代에는 또 甲寅字를 改鑄한, 이른바 戊午字를 鑄造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단독으로 많은 서책을 印刷할 수 있는 정도의 대규모 改鑄가 아니었고, 이 지리지기 쉬운 木刻字를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補鑄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仁祖時에 들어 와서도 많은 책이 印刷되었는데, 당시의 版式은 주로 訓練都監字에 의한 것이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周禮》라든가 《儀禮》, 《孝經》, 《家禮》와 같은 禮에 관한 서적과 《春秋》類가 많다는 점일 것이다.

訓練都監字가 거의 자취를 감출 무렵인 孝宗 중엽에 行書體로 쓰여진 中小形 木活字木인 行書體字 木活字가 나왔으나 中國思想關係書籍으로서 이 版式에 의한 판본은 보이지 않

9) 손보기, 前掲書, pp. 222-223.

10) 金斗鍾, 前掲書, pp. 286-287.

는다.

顯宗代에도 孝宗實錄을 印出한 顯宗 2년의 이른바 孝宗實錄字가 있으나, 孝宗實錄 외에는 이것으로 印刷한 典籍을 찾을 수 없었다. 그밖에 顯宗 9년 戊申年(1668년), 守禦使 金佐明(1616~1670)이 守禦廳에서 甲寅字體를 字本으로 하여 笏쇠를 부어 大形字體 6면 6천여 자와 小形字體 4면 7천여 자를 鑄造해 내었는데, 이는 世宗 16년 甲寅年(1434년)의 甲寅字를 가지고 宣祖 6년 癸酉年(1573년)의 제 2차 改鑄에 이어 제 3차 改鑄한 것으로, 속칭 三鑄甲寅字 또는 戊申字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그 후 英祖 말년까지 거의 90여 년에 걸쳐 계속 쓰여지게 되었는데,<sup>11)</sup> 顯宗 13년(1672년)경에 印出된 바 《西山眞氏心經附註》가 바로 이 戊申字를 이용한 것이었다.

肅宗時에는 몇 가지의 활자가 鑄造되었는데, 맨 먼저 나온 것이 肅宗 3년(1677년) 顯宗實錄을 印出하기 위해서 만든 이른바 顯宗實錄字로 이것은 顯宗實錄만이 아니라, 哲宗까지 모두 7대의 實錄을 印刷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자연 實錄 이외의 典籍도 印出하게 되었는데, 肅宗 44년(1718년)의 《孫武子直解》와 《六韜直解》와 같은 兵家書는 모두 이것에 의한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肅宗 3, 4년 경에 김좌명의 아들인 金錫胄(1634~1684)가 韓構(1636~?)의 行書體를 字本으로 하여 鑄造한 韓構字로, 肅宗 10년(1684년) 金錫胄가 죽기까지 金錫胄家와 연고가 있는 서적들을 印出하였는데, 이것은 조선 초기의 다른 活字本과는 달리 왕의 칙명에 의한 것도, 국가기관인 校書館 혹은 군영에서 鑄造된 것도 아닌, 순전히 개인적인 사업에 의해 鑄造된 것이었다. 그러나 金錫胄가 죽은 후 이것이 印書에 별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자 肅宗 21년 이후 戶曹에서 이를 매입하여 校書館으로 이관시켜서 英祖 7년 경까지 서적 印刷에 계속 이용하였다.<sup>12)</sup> 肅宗 3년으로부터 10년 사이에 金錫胄家에서 간행된 《大學章句或問》은 바로 이 韓構字에 의한 것이었다. 그 다음은 第一校書館印書體字(일명 第一藝閣 무쇠자)와 第二校書館印書體字(일명 第二藝閣 무쇠자)로, 진자는 肅宗 15년 이전에 鑄造되었으며, 후자는 肅宗 末, 景宗 初에 鑄造된 것으로 주로 개인 문집의 간행에 사용되었다. 校書館 筆書體字라는 것도 있는데, 적어도 肅宗 14년 이전에 鑄造된 것으로 肅宗 35년과 38년에 각각 간행된 《朱子學的》과 《孔聖家語》는 바로 이것에 의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宣祖의 아들이자 仁祖의 아버지인 元宗(1580~1619)이 써 둔 《孟子諺解》를 찍기 위한 목전에서 鑄造한 元宗字도 있다.<sup>13)</sup> 그러나 오늘날 전해지는 肅宗時에 간행된, 대부분의 典籍은 바로 金佐明의 甲寅字體(戊申字)에 의한 것이었다. 이 시기의 현저한 특징으로는 《論語》, 《孟子》, 《大學》, 《中庸》 등의 四書와 《詩經》, 《周易》, 《禮記》, 《春秋》 등 五經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말년에 가면 《孫子》, 《吳子》, 《尉繚子》, 《六韜》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11) 손보기, 前揭書, p. 231 및 金斗鍾, 前揭書, pp. 303-305.

12) 金斗鍾, 前揭書, pp. 308-309.

13) 손보기, 前揭書, pp. 235-236.

英祖時에도 역시 많은 典籍들이 간행되었는데, 대체로 顯宗時의 戊申字나 肅宗時의 校書館 印書體, 校書館 筆書體에 의해 典籍들을 印出해 내었다. 그러다가 英祖 48년 壬辰年(1772년)에 甲寅字 15만 자를 鑄造하니, 이것이 壬辰字로 1772년에서 1776년 사이에 간행된 《易學啓蒙要解》 및 《易學啓蒙集傳》은 바로 이 壬辰字에 의한 것이다. 英祖時의 典籍 간행에 있어서는 전대와 비교해 다른 兵家書들이 자취를 감춘 대신 《司馬法》이 선을 보였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발견되지 않는다.

正祖는 즉위 원년에 평양감사에게 명하여 다시 甲寅字 15만 자를 만들어 올리게 하니, 이것이 丁酉字이며, 正祖 6년에 印書된 《近思錄》 등이 바로 이것에 의한 것이었다. 丁酉字는 正祖 원년에 왕명에 의해 鑄造된 이후, 純宗 3년(1909년)에 이르기까지 130여 년에 걸쳐 사용되었다.<sup>14)</sup> 또 正祖 6년 壬寅年(1782년)에는 평양감사에게 명하여 韓構字 8만여 자를 再鑄케 하였는데, 이것을 再鑄韓構字 또는 壬寅字라고도 한다. 한편 正祖 16년 壬子年(1792년)에는 康熙字典을 字木으로 하여 黃楊木으로 大小 32만여 자의 生生字를 만들었고, 同 19년에는 生生字를 字木으로 하여 大字 16만자, 小字 14만자의 整理字를 鑄造해 내었다. 生生字는 비록 木活字이지만 워낙 정교하여 整理字와의 구별이 쉽지 않다.<sup>15)</sup> 正祖 24년에 印出된 《論孟人物類聚》 및 正祖年間에 간행된 《大學朱子章句》 등은 整理字에 의한 것이며, 이 활자는 高宗 35년 경까지 거의 100여 년간 계속 사용되었다.

純祖 15년(1815년) 南公徹이 조각한 筆書體인 聚珍字와 同 22년에(1822년)에 역시 南公徹이 조각한 印書體의 일종인 全史字가 鑄造되었는데, 후자는 비록 개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후에는 결국 관부의 소유가 되어 많은 서적을 印刷해 내게 되었다.<sup>16)</sup> 그러나 상기 목록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존하는 純祖時 印出된 典籍들은 전대의 活字木에 의한 것이나 木版에 의한 것인데, 특히 木版本이 많았던 것은 이 시기에 우리의 印刷術이 차츰 후퇴되어 가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감을 준다. 그리고 純祖 2년의 《孟子集註大全》 등을 印出해 낸 希顯堂字는 整理字體를 字木으로 하여 全州 希顯堂에서 正祖 22년(1798년)경에 무쇠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時期에 印出된 典籍은 四書五經大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4. 刊行 書目上의 特徵

##### 1) 儒家類

###### 가. 四書五經類

四書 가운데 朝鮮時代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간행된 것은 《大學》이었다. 상

14) 金斗鍾, 前揭書, p. 326.

15) 金斗鍾, 前揭書, p. 327.

16) 金斗鍾, 前揭書, pp. 330-332.

기 목록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大學》은 현존하는 典籍들 가운데 가장 일찍부터 印出된 것 중의 하나이다. 大學은 원래는 《禮記》 가운데 들어 있는 한 편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송대 司馬光이 《禮記》에서 《大學》을 떼어 내어 《大學廣義》를 지었고, 그 후 二程이 《論語》, 《孟子》, 《中庸》과 함께 初學入德의 門으로 《大學》을 같은 반열에 올려 놓았으며, 朱子가 이것을 숭상하여 經 1章과 傳 10章으로 分章, 註解를 가한 이후, 이것이 크게 세상에 퍼졌다. 朱子는 錯簡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 잡아 定本을 만들었는데, 明의 王陽明이 「十三經註疏」의 《禮記》에서 《大學》 1篇을 떼어 내어 古本 그대로를 定本으로 삼은 이래, 양명학자는 물론이거니와 청조의 학자들도 이를 그대로 追從, 朱子の 武斷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일찍부터 朱子學이 수입되어 이것이 유학의 바탕으로 자리한 조선에서는 줄곧 朱子說 이외의 다른 학설에 대하여는 전혀 돌볼 겨를이 없었으며 단일 朱子の 설 이외의 다른 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斯文亂賊이라 하여 배척당하였으므로 다른 학설은 발붙일 곳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朝鮮時代に 간행된 서목상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바, 《大學章句》(《大學章句大全》, 《大學大全》, 《大學》 등은 이름은 달라도 역시 같은 책임), 《大學或問》(《大學章句或問》, 《大學朱子或問》, 《大學或問懸吐》 등도 이름은 달라도 역시 같은 책임) 등과 《中庸》과 합본으로 되어 있는 《大學中庸章句》는 모두 朱子の 저서이며, 단일 제목으로 가장 많았던 《大學衍義》 역시 朱子の 설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中庸》 또한 《禮記》 중의 한 편에 속해 있었던 것이었는데, 六朝 劉宋 때 戴暉에 의해 처음으로 《中庸傳》 2卷을 저술, 禮記에서 독립되었으며, 程子에 이르러서 《大學》, 《論語》, 《孟子》와 더불어 儒家의 基本經典으로 읽혔고, 朱子가 章句를 저음으로부터 크게 세상에 퍼졌다. 《中庸》 역시 朱子の 설이 주가 되었으므로 朝鮮時代に 간행된 것도 朱子の 저서인 《中庸章句》(《中庸章句大全》도 같다), 《中庸或問》에 집중되었다.

《論語》와 《孟子》 역시 《大學》, 《中庸》에 못지 않게 많이 간행되었다. 진정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바이지만, 世宗代에 四書五經과 性理大全 229권을 간행할 때 《論語》와 《孟子》도 같이 간행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印出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는 《論語》와 《孟子》 공히 世宗代에 간행된 것이 최고본이고, 주로 구한말의 것이 많은 편이며, 이들 역시 朱子の 「集註」와 「或問」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五經 중 현존하는 최고의 판본은 正祖 2년에 印出된 《書傳集傳》이며, 다음으로 太宗 16년에 간행된 《禮記淺見錄》이다. 世宗時에는 四書五經大全의 대대적인 간행으로 오늘날까지도 《詩經大全》, 《書傳大全》, 《周易大全》, 《禮記集說大全》, 《春秋大全》 등이 남아 있다.

《詩經》은 사상서로서보다는 문학서로 더 많이 읽혀져 왔다. 그 주해서로는 한대 鄭玄의 《毛詩鄭箋》과 이를 부연한 唐代 孔穎達의 《毛詩正義》가 있으며, 송대 朱熹의 《詩集傳》이 나왔는데, 「十三經註疏」 本에는 孔穎達의 《毛詩正義》가 들어가 있으나 朱熹의 주가 나온 이후로는 元·明·清代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가장 권위있는 주해서로 통용되어 왔다. 朝鮮

時代에 간행된 것으로 가장 많은 《詩經》 판본은 明의 胡廣 등이 勅撰한 《詩傳大全》이지만, 이는 朱熹의 설을 확대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朱子學을 정통 학문으로 여겨온 우리 先祖들의 내도를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겠다.

《書經》 또한 산문의 모범으로 여겨져 올 만큼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책이지만, 《大學》經 1章이나 《中庸》 사상의 배경과 단서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으며, 《孟子》의 王道政治論의 단서도 여기에서 시각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치·철학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책이다. 그 주해서로 「十三經註疏」本 속에 漢代 孔安國의 傳에 唐代 孔穎達이 疏를 붙인 《尚書正義》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朱子가 못다한 주를 蔡沈이 한 《書集傳》(書傳集傳) 또는 《書傳》이 바로 그것이다)가 주류를 이루었다. 《書傳大全》이라는 것도 같은 류이다.

《周易》은 儒家의 경전 중 가장 철학성이 풍부한 책으로 전통적으로는 周나라 文王이 卦辭를 짓고 周公이 爻辭를 지었으며, 여기에 孔子가 10翼을 지었다고 알려져 왔다. 그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책은 孔子 자신이 책을 맨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질 정도 많이 애독했고, 또한 秦始皇이 焚書를 결행하던 때에도 卜筮書라 하여 화를 당하지 않았을 만큼 중시되었던 책이다. 위나 중요하면서도 또한 어려워서 그 주해서가 유난히 많은 책 중의 하나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주석가로는 한대 鄭玄과 魏의 王肅과 王弼, 晉의 韓康伯을 들 수 있는데, 당대의 孔穎達은 王弼과 韓康伯의 註에 자신의 疏를 붙여서 《周易正義》라는 책을 내었는데 이것은 「十三經註疏」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性理學의 기풍이 강했던 宋代에는 邵康節이 數를, 二程이 理를 周濂溪가 體를, 그리고 張橫渠는 用을 각각 체득하였으며, 朱子는 義理와 象數를 종합하여 《周易本義》를 저술하였고, 明의 胡廣 등은 欽命을 받들어 董楷의 《周易傳義附錄》, 董眞卿의 《周易會通》, 胡一桂의 《周易本義附錄贊疏》, 胡炳文的 《周易本義通釋》 등에 의거 중복된 것을 삭제해서 《周易大全》을 엮었는데, 이 책들은 모두 朱子의 《周易本義》에 의거한 것들이므로 결국 이것 역시 朱子의 설에 근거한 것에 다름 없다. 朝鮮時代에 간행된 《周易》 판본을 보면, 世宗時에 《周易大全》이 간행된 이래 《周易本義》, 《周易傳義大全》, 《易本義》, 《周易本義啓蒙翼傳》 등등, 모두가 朱熹의 저서 내지는 朱熹의 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 길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朱子學의 영향으로 《易學啓蒙》, 《易學啓蒙要解》 등, 朱子의 易學 啓蒙의 취지를 부연한 저서도 많이 간행 열독되었으며, 《周易》의 爻象을 빌어 煉養의 뜻을 논한 漢 魏伯陽의 《周易參同契》와 그 참고서인 漢 上陽子の 《周易參同契分章註》, 後蜀 彭曉의 《周易參同契通眞義》, 宋 陳顯微의 《周易參同契解》 같은 책들도 많이 印出되었다.

《禮記》는 예에 관한 이론 및 실재를 기록한 책인데, 예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인간 관계를 성립시키는 그런 규범의 범주를 뛰어 넘어 儒家思想의 始源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그래서 儒家들은 일찍부터 이 책을 중요한 경전으로 삼아

왔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禮記》는 漢 宣帝 때 사람인 戴聖이 편집한 소위 《小戴禮》이다. 대표적인 주석본으로는 唐代의 孔穎達이 漢代 鄭玄의 註에 자신의 疏를 덧붙인 《禮記正義》와 宋代 衛湜의 《禮記集說》, 元代 陳澧의 《雲莊禮記集說》, 그리고 陳澧의 설 등을 바탕으로 하고, 기타 42家の 설을 모아 칙찬한 명대 胡廣 等の 《禮記大全》이 있다. 원대까지는 《禮記正義》가 교본으로 사용되었으나, 《禮記大全》이 칙찬된 이후로는 正義를 폐하고 集說을 표준으로 삼게 되었다. 조선에서 간행된 것 역시 世宗代에 四書五經大全을 간행한 이후 이것이 저본으로 사용되었다.

《禮記》와 함께 이른바 삼례로 일컬어지는 《儀禮》와 《周禮》가 있다. 원래는 하나로 묶여 「五經」에 속했던 것인데 후에 분화되었고, 현재는 나뉘인 체 「十三經」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四書五經」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함께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책의 내용상으로 보면 《禮記》는 예의 일반에 대한 이론적인 반성과 《儀禮》에 대한 해설 등을 기록한 책인 반면, 《儀禮》는 冠婚喪祭 등, 종교 및 습속적인 생활 의식을 기록한 책이며, 《周禮》는 禮의 정치적인 면의 전개, 즉 통치 기구의 조직, 관직의 상하 서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朝鮮時代に 《禮記》보다 《儀禮》라는 책이 보다 활발히 간행되었던 것은 바로 조선인들이 一般論인 《禮記》보다는 生活 속에 있어서의 禮의 규범을 내용으로 한 《儀禮》가 보다 上位의 것이란,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儀禮》의 주석본으로는 한대 鄭玄의 註에 당대 賈公彥이 疏를 붙인 《儀禮註疏》와 송대 朱子の 《儀禮經傳通解》, 宋 黃幹이 찬한 《儀禮經傳通解疏》가 가장 대표적인데, 朝鮮時代에도 역시 이들을 저본하고 있으며, 《周禮》의 주석본으로도 역시 鄭玄의 註에 賈公彥의 疏가 달린 《周禮註疏》가 있는데, 朝鮮時代의 간본도 이를 저본으로 하고 있다.

《春秋》는 孔子의 직접 저술에 의한 것으로 孔子의 정신을 가장 선명하게 담고 있다고 여겨져 漢代 이래로 五經에 편입되어 존중을 받아 온 책이다. 《春秋》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책은 魯 隱公 元年(BC 722년)부터 魯 哀公 14년(BC 481년)까지 242년 간의 노나라를 중심으로 한 일국의 중요한 기사를 간략하게 기록한 연대기에 지나지 않지만, 진통적으로 이 책은 孔子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저술, 즉 이른바 孔子의 微言大義가 春秋筆法에 의해 記述되어 있다는 저술로 인식되어 일찍부터 자못 존중을 받아 왔던 것이다. 이처럼 《春秋》는 간략한 문장 속에 대의를 담고 있다고 여겨져 왔으므로 漢代 이래로 많은 해석서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른바 今文學派인 《春秋公羊傳》과 《春秋穀梁傳》 및 古文學派인 《春秋左氏傳》(《左傳》)이라고도 하는 바, 이를 《春秋》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저술로 보는 견해도 많다)이 있다. 이 春秋三傳 가운데 後漢 이후로는 《春秋左氏傳》이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던 바, 朝鮮時代에도 역시 《春秋左氏傳》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 三傳 외에 宋 胡安國이 새로이 해석한 《春秋胡氏傳》 또한 적지 않게 간행되었다. 그리고 《春秋左氏傳》의 주해서로는 晉代 杜預의 《春秋經傳集解》가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朝

鮮時代에도 이것을 위주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朝鮮朝에서는 당대 林堯叟의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句讀直解》라는 책이 世宗代부터 널리, 그리고 꾸준히 읽혀져 왔으며, 그 밖에도 송대 《春秋左傳詳節句解》, 明 郭登의 《春秋左傳直解》 등도 읽혀졌다.

四書五經에 대해서는 이밖에도 《五經四書》, 《四書三經》, 아니면 《三經四書正文》, 《四書大全》, 《四書廣註》 등의 이름으로 한꺼번에 묶여 刊行된 것들도 많이 있었다.

#### 나. 기 타

「四書五經」에는 들지 않지만, 중국에서 「十三經」의 하나로 包含돼 널리 읽혀 온 것으로 《孝經》과 《爾雅》가 있다.

《孝經》은 주로 효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책으로, 한초에 이미 《論語》와 함께 당시 孔子가 직접 산정했다 하여 「五經」으로 일컬어져 왔던 《詩經》, 《書經》, 《易經》, 《禮記》, 《春秋》와 더불어 經으로 편입될 만큼 유학자들에게 존송되어 왔던 책이다. 《孝經》에는 《今文孝經》과 《古文孝經》이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 주로 읽혀진 것은 《孝經大義》로서 朱子の 《孝經刊誤》에 元代의 董鼎이 주를 붙인 것이었다. 그런데 朱熹의 《孝經刊誤》는 《古文孝經》을 취한 것이므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古文孝經》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爾雅》는 중국 최초의 語義를 해석한 사전으로, 그 저자와 著作年代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설이 많지만, 대체로 秦漢時代의 학자들이 《詩經》의 해석에 관련된 설을 모아 놓은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이 책은 《釋訓》 등 19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漢代 이후로 《詩經》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필독서로 여겨져 당대에는 이른바 「十三經」의 하나로 존송되기까지 하였다. 그 주해서로는 晉 郭璞이 註를 붙이고 宋 邢昺이 疏를 붙인 《爾雅註疏》와 이를 보완한 清 郝懿行的 《爾雅義疏》가 대표적인 것이다. 훈고를 위주로 하던 한학이 주류를 이루던 時代에는 이 책이 것처럼 중시되었으나 性理學이 주류를 이루어온 時代에는 이 책은 거의 외면되었다. 朝鮮時代 역시 性理學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므로, 이 책은 거의 외면되다시피 하였으니,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中宗~明宗 년간에 간행된 《爾雅註疏》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朝鮮時代에는 孔子의 言語, 事跡 및 문인들과의 문답을 기록하였다는 《孔子家語》라는 책도 십십치 않게 간행되었다. 이 책은 《漢書·藝文志》에 실여 있지만 여기에 기록된 것은 이미 망실되고 현재 전해지는 魏 王肅이 註를 단 《孔子家語》는 그의 僞書로 알려지고 있다.

朝鮮時代는 朱子學이라고도 하는 性理學이 사상의 주류를 이루었으므로 性理學에 관한 시적이 참으로 많이 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朝鮮時代に 널리 간행되고 읽혔던 책은 송대 性理學을 집대성한 朱熹가 당시의 석학 呂祖謙과 더불어 서로 협력하여 周敦頤, 二程, 張載 등 4학자의 저서 중에서 精選하여 만든 《近思錄》과 宋代 熊節이 송대 諸儒들의 遺文을 유형별로 分類, 編撰한 《性理群書句解》 및 明代 胡廣 등이 칙명에 의해서 宋代 道學者 120家的 설을 채집해서 만든 《性理大全》 등은 四書五經과 더불어 性理學을 공부하려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참고서가 되었다.

이와 아울러 《朱子大全》(혹은 《朱子文集大全》)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어 널리 朱子의 시문집도 읽혀졌는데, 이는 조선의 학자들이 그의 문집으로부터 사회적 功能을 가진 詩文 창작의 규범을 배움은 물론 그의 사상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한다. 《朱文酌海》, 《朱子實記》, 《朱子性理吟》, 《晦庵文抄》 등의 서적이든가 周敦頤, 二程 등 濂洛學者 48人의 道學詩를 모은 元 金履祥의 《濂洛風雅》가 간행되었던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朱子 사후, 그의 문인들이 나누어 기록한 朱子 생전의 어록이 宋 黎靖德에 의해 편집된 《朱子語類》 또한 많이 읽혀졌다.

한편 朝鮮時代에는 《家禮》(혹은 《朱子家禮》)라는 책이 꾸준히 그리고 꽤 많이 간행되었는데, 유교란 원래 예를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학문이라는 하지만, 그러한 이유 외에 이 책에 대한 조선조 학자들의 이와 같은 애호는 朱子에 대한 맹신도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아니었나 싶다. 왜냐하면, 이 책은 명목은 朱子의 지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朱子의 이름을 빈 僞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性理學 관계서로 朱子의 저술의 예도 周敦頤의 《太極圖說》과 二程의 《二程全書》, 《程書分類》 등이 읽혀졌으며, 眞德秀가 성현들이 인간의 마음(心)을 논한 積언을 모으고 거기에 諸儒들의 이론을 주로 삼아 찬한 《心經》은 대단한 관심을 끌어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에게 의해 읽혀져 왔다. 그것의 주해본으로는 명대 鄭敏政의 《心經附註》가 주종을 이루었다.

일상의 예의범절로부터 수신과 도덕에 관련된 積인, 충신과 효자의 사적 등을 모은 일종의 수양서인 《小學》은 小學課程에 있는 학동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로, 조선에서도 역시 이를 학동들의 교과서로 삼아왔으므로 꾸준히 많은 양의 책이 간행되었으며, 그 주해본도 역시 명대 陳選의 《小學集註》, 程愈의 《小學集說》, 何士信의 《小學集成》 등 여러 가지가 유행되었다. 《小學》은 舊本에는 朱熹가 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선에서 간행된 책에도 모두 朱熹의 찬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실제로는 그의 문인인 劉子澄이 朱熹의 가르침을 받아 찬술한 것인데도,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를 朱熹가 찬한 것으로 여긴 것은 《家禮》를 朱熹의 찬으로 여겨 존중한 것과 함께 조선시대 학자들의 朱子에 대한 존숭이 어떠하였던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例證이라 하겠다.

## 2) 諸子類

### 가. 道家類

《漢書藝文志·諸子略》에는 春秋戰國時期的 제자백가를 儒家類를 포함하여 크게 10家로 나누었는데 朝鮮時代에는 이들 10家 중 儒家와 道家, 兵家 등 3가만이 수용되었을 뿐이며, 기타 사상가는 아예 발도 들어 놓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儒家 사상에 속하는 양명학 역시 斯文亂賊으로 취급되어 이 땅에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朱

子學이 조선 시대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일이라 하겠다.

道家思想은 儒家思想과 더불어 중국을 여지껏 떠만들어 온 양내 지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즉 세성이 태평 성세를 구가할 때에는 儒家思想이 중국을 이끌었고, 세성이 어지럽고 어려울 때에는 道家思想이 중국 민중의 안식처가 되어 주민서 중국을 이끌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도가사상은 우리 한반도에는 비록 일찌기 三國時代에 전래되어 오긴 했지만 儒家思想보다 늦게 전래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 차원에서 보다는 종교로서의 도교의 형태로 전래되어 왔으며, 또한 그다지 크게 사랑받지도 못하였던 것 같다. 朝鮮時代 진행되었던 道家書만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兵家書보다도 양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종류도 적어 《莊子》에만 편중된 감이 있다.

#### 나. 兵家類

兵家類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國防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상적인 차원을 떠나서 실리적인 목적에 의해 정책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간행되었던 듯하다. 그리고 간행된 시기를 보면 태평성대시보다는 국가의 기강을 가다듬거나 국란의 위기가 있었던 시기에 더욱 많은 양이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간행된 서목을 보면 《六韜》, 《孫子》, 《吳子》, 《尉繚子》, 《司馬法》, 《三略》, 《李衛公問對》 등 이른바 「七書」(「武學七書」 또는 「武經七書」라고도 한다)—싱기 목록표에 《三略》과 《李衛公問對》는 단일 서목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明 劉寅의 《七書直解》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음—가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들 「七書」 가운데는 역시 《孫子》가 가장 많다. 우선 그 주석본만 해도 曹操 등이 주를 단 《十一家註孫子》와 明 劉寅의 《孫武子直解》 등 2종이나 된다. 나머지는 原書 외에는 모두 明 劉寅의 「直解」本이다.

兵家書에는 이들 「七書」 외에도 蜀 諸葛亮이 찬했다고 전해지는 《諸葛孔明心書》—그리나 실제로는 제갈량에 위탁한 僞書이다—와 明 章漢의 《百戰奇法》과 같은 책까지도 간행되었을 정도이니, 朝鮮時代에 兵家書에 대해 조정에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 5. 結 語

이상에서 살펴본 朝鮮時代에 간행되던 바 中國思想關係 書目만을 가지고 종합해 보더라도 朝鮮時代는 가히 유학의 時代, 그것도 朱子를 정점으로 한 性理學의 時代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즉 朝鮮時代에 간행된 中國思想關係 書籍 중, 약 9할 이상이 性理學을 포함

한 儒家經典이거나 儒家 또는 朱子 및 性理學과 관련한 서적이었던 것이다. 明代 이후 추종자가 그렇게도 많았던 양명학에 관련된 서적조차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을 잘 입증한다. 그렇다고 물론 朝鮮時代に 다른 사상과 관련한 서적의 간행이 전혀 없었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 양명학에 관심을 가진 학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간의 道家書와 이보다는 더 많은 兵家書들이 간행되기도 하였고, 또 경기지방의 主氣論的 학자 계통의 정권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 특히 少論 계통의 일부 학자들이나 정치적 진출에 제약을 받은 宗室人士나 서얼 출신들에 의해 양명학이 수용된 경우—그 대표자가 鄭齊斗로, 그의 사상은 대표저서인 《存言》에 잘 나타나 있다—도 있었지만<sup>17)</sup>, 이것은 결코 朝鮮時代 사상의 주류는 아니었던 것이다.

金學主 教授가 “朝鮮時代 刊行 中國文學關係書 概況”이라는 논문에서 중국문학사상 각 時代를 대표할 작가들의 문집과 시문신집을 가장 잘 선택한 시기가 世宗時라는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지만,<sup>18)</sup> 中國思想關係 書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世宗 때가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가장 풍부하게 中國思想關係 書籍들이 간행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世宗時에는 世宗의 명으로 중국 명나라에서 儒家經典의 총결신 작이라고 할 수 있는 四書五經大典과 性理大全을 얻어 오게 해서 이들을 대량으로 印出해 내었으며, 이후 朝鮮時代 전반을 통해 이것이 朝鮮時代に 간행된 中國思想關係書 특히 유교사상 유관서적의 저본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世宗의 업적은 지대한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世宗時에 간행되었던 典籍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朝鮮朝를 통털어 그 어느 時代に 간행된 典籍들보다도 더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당시의 이들 典籍에 대한 印出 상황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은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序言에서도 이미 말한 바이지만, 본 논문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학자들의 연구 성과와 주요 도서관 장서 목록에 의해 朝鮮時代に 간행된 中國思想關係 書籍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진행될 이들 서적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므로, 위 목록표에서 제시한 것들이 결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다시금 밝혀 둔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는 이처럼 朝鮮時代に 서로 서명을 달리하고 있는 책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 외에, 보다 중점이 주어져야 할 측면은 또한 同一 題名 의 書籍들에 관한 內容의 比較 研究라던가, 특히 中國本과 朝鮮 刊本 사이의 비교를 통해 조선간본의 특징을 밝히는 일인가 한다.

17) 李基白, 前掲書, p. 290.

18) 金學主, “朝鮮時代刊行 中國文學關係書 概況,” 《東亞文化》第25輯, pp. 11-12.

## 參 考 書 目

1.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會。
2. 《서울대 一般古書目錄》，서울대 圖書館。
3. 《奎章閣圖書中國本總目錄》，서울대 圖書館。
4.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서울대 圖書館。
5. 《韓國古書綜合目錄》，國學資料保存會。
6. 《韓國典籍綜合目錄》，韓國國會圖書館。
7. 《藏書分類目錄》，國立中央圖書館。
8.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서울, 探求堂, 1972.
9. 《古書目錄》，延世大 中央圖書館。
10. 《古書目錄》，成均館大 中央圖書館。
11. 《古書目錄》，東國大 中央圖書館。
12. 《古書目錄》，李相殷，保景文化社，1987.
13. 《韓國書誌學概論》，尹炳泰，韓國書誌學情報學會。
14. 《韓國古書年表資料》，尹炳泰，國會圖書館報 第9卷 第3號。
15. 《中韓兩目古活字印刷技術之比較研究》，曹炯鎮，臺北 學海出版社。
16. 《朝鮮思想史》，玄相允(1978, 서울, 民族文化社)。
17. 《韓國史新論》，李基白(1980, 改正, 서울, 一潮閣)。
18. 《朝鮮史年表》，高秉雲·鄭晉和 共編，第二版(1981, 東京, 雄山閣)。
19. 《韓國思想論稿》，成樂熏(1982, 서울, 同和出版公社)。
20. 《韓民族의 歷史》，李炳柱 外 4人(1982, 서울, 一潮閣)。
21. 《增補韓國思想史》，金得楳(1973, 서울, 良友堂)。
22. 《韓國傳統思想의 理解》，沈佑燮(1990, 서울, 螢雪)。
23. 《韓國儒學史》，成樂熏(韓國文化史大系 Ⅱ, 1970,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24. 《朝鮮儒學史》，玄相允(1954, 서울, 民衆書館)。
25. 《韓國古印刷技術史》，金斗鍾(1980, 서울, 탐구당)。
26. 《朝鮮朝活字考》—大型活字，尹炳泰，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1976.
27. 《금속활자와 인쇄술》，손보기, 서울, 세종 대왕 기념 사업회, 1977.

## A Survey on Philosophical Publications of the Chosun Period

Wan-Shik Choi

This study is a part of a larger project to investigate scholarly publications of the Chosun period. In this study, the author aimed at investigating those books related to philosophical discussions during the Chosun period. In this paper, the author tri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in detail: (1) what kinds of publication were brought forth, (2) in what particular reign the publication activity was at its height, and (3) what kind of ideological main stream we can find from it.

In this study, the author put more than 390 kinds of publication published during the Chosun period under investigation. These were classified into several groups in terms of publication period, ideological trend, and field. They include; Confucian classics and annotations belonging to the Chu Hsi School, pedagogical writings, Taoist cannons and other scholarly writings attributed to pre-Chin scholars rather than Confucian scholars, military strategies and manuals, etc.

The investigation produced a conclusion that reaffirmed the traditional evaluation on scholarly achievements during the Chosun period; that the Chosun period was a high time of the Confucian scholarship, particularly the scholarship of Chu Hsi School. This is backed up by the fact that almost 90% of the entire publication throughout the Chosun period belong to those of Confucian background related to scholarly thought of Chu Hsi. It is noteworthy that books on Yang-ming School, which attracted a great number of followers after the collapse of Ming dynasty in China, took a very small portion in Korean scholarship. Even though there were some scattered publications of other natures than Confucian scholarship, it was evident that the Chu Hsi's thought took the position of the most influential stream in the minds of Korean scholars during the Chosun period. Among the various reigns during the Chosun period, that of King Sejong was the period when a majority of publication came into being. Among the books published during King Sejong's reign were the encyclopaedic anthology of Confucian classics and the anthology of Chu Hsi's philosophical theory. These two items became the most influential publications for later scholars who regarded them as the core of their scholarship. In this sense, no one can deny the influential role King Sejong played in philosophical sophistication that took place during the later years of Chosun period.